

# 이 모 저 모

## 남산환경가꾸기 참가

이종용회장을 비롯 본 협회 임직원들은 오는 4월5일 그린스카우트가 주관한 '남산 사랑의 날과 국립묘지 식목' 행사에 참가, 환경보호 캠페인과 쓰레기 줍기 작업에 참여한다. 4월5일 식목일을 맞아 그린스카우트가 남산환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된 이날 행사에서 협회 임직원들은 남산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홍보활동과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도 벌인다.

## 연천군 현장기술교육

경기도 연천군 약초재배작목반은 오는 4월10일경 현장 재배기술교육 강화를 갖는다. 36명의 약초작목반 외에도 군·면·농촌지도소 관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교육에는 연천군 김인욱 공관장장(생약협회)이 관리기를 이용한 씨비닐 파종장면을 시범 보일 예정이다.

## 포천·영주 약초작목반 자매결연

경기도 포천군 약초작목반과 경북 영주군 약초작목반은 최근 자매결연을 맺고, 지난달 9일 일차적으로 영주군 작목반 회원들이 포천지역을 방문, 현지 생약재 가공과정 등을 견학. 약초 재배기술과 가격, 전망 등 다양한 정보교류 차원에서 이들 두 작목반은 1년에 두 차례 정례모임을 갖고 상호 우의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 정선약초시장

### 5일장 개설

정선약초시장변영회(회장 정명섭)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정선약초시장에 5일장을 개설하고, 4월1일 개장식을 가졌다.

정선군은 강원도 약초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생약주산지. 5일장 개설은, 이같은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여 정선 약초시장을 전국 단위의 약초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5일장에서는 자연산을 포함한 각종 약초 외에도 농산물, 산나물도 취급할 예정이며, 장날은 기존의 정선 장날인 매달 2일, 7일 끝자리 날이다.

## '95영농기술교육강의

본 협회 김용한 이사(경북 영주군)는 지난달 8일·10일, 경북도민교육원이 약초반 현지

교육을 위해 마련한 95년 영농기술교육에 강사로 참석. 8일은 영양군청 회의실에서 「주요 약초 재배 기술」에 관해, 10일은 봉화군 춘양면 회의실에서 「약초재배와 수출전망」에 대해 강의.

## 내부감사 실시

지난달 6일·7일 이틀간 허영감사(경북 김천 공관장장), 최맹호 감사(부산 금정구 사무소장)는 본 협회 내부감사를 실시.

## 생약가공공장 개관

전남 승주군 라한주이사는 지난달 11일, 생약가공공장 개관식을 가졌다. 대지 8백63평, 건평 1백60평 규모의 가공공장은 생약가공을 위한 기계시설과 보관창고·건조장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순천시청 농산국 관계담당관,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 관내 생약관계자 5백여명이 참석.

## 지부소식

○...충청남도지부(지부장·문대규)는 지난달 22일 천안에서 지부회의를 개최.



○...지난달 30일 강원도지부(지부장·박영임)는 31일 정기총회에 앞서 서울에서 지부회의를 개최.



○...경기도지부(지부장·김성배)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에서 지부회의를 개최.

○...오는 4월15일 전라남도지부(지부장·정형모)는 순천에서 지부회의를 개최할 예정.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1일 규격화 시행에 대비 규격품 생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 논의될 듯.

일찌기 고을이름이 무릉도원이라 불리웠던 강원도 우리 정선군은 일년내 가뭄이 없을뿐 아니라 석회질 성분의 점질토양과 산계곡마다 흘러 내려온 자연수 등 약효능이 뛰어난 약초의 자생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고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약재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초재배 농가수도 부쩍 늘었으며 오염되지 않은 고품질의 생약재는 우리 정선의 큰 자랑입니다.

본인은, 제 손으로 생산해낸 한약재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약초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농민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량으로 들어오는 값싼 수입약재로 정작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 농민의 소리



수확한 국산 한약재는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베풀어야 할 한의원에서조차 약효능과는 상관없이 값싼 수입약재를 선호한다고 하니 우리 생산농민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노릇입니다.

물론 그것은 한의원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겠거니 생각은 하지만 갈수록 조여오는 국내 생약농업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막막한 심정입니다.

수입개방화다 세계화다 해서 활동 무대는 자꾸만 넓어지는데 유독 우리 농민들의 운신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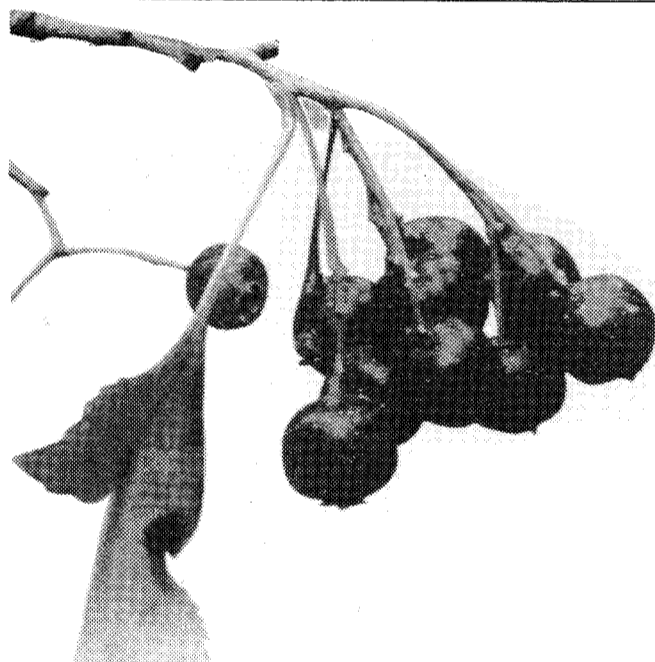
그래도 약초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실험재배와 관찰을 통해 고품질의 생약재를 개발하고, 기술보급을 위해 애쓰는 많은 선동농민들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국내생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최규철 (5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번)

## 손쉬운

## 민간요법 <식체>

빛깔있는 책들 <105> 민간요법 中 발췌



◇아가위 산사라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고 체한 데에 효과를 본다.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육류 복용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육류에는 지방질과 단백질의 함량이 높는데 이것을 먹고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대개 위장 안에서 소화액의 분비가 적은 사람들이다.

고기들의 종류가 각기 다르므로 소화 불량을 일으켰을 때에 치료되는 약재도 동일하지 않다. 이를테면 개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는 살구씨를 먹고, 돼지고기에 체했을 때에는 새우젓, 쇠고기에는 문어를 먹는다.

### 쇠고기 먹고 체했을 때

사용법: 문어 1백g에 물 한 사발 붓고 1시간 동안 끓여서 그 물을 한 번에 50ml

리터씩 하루 3번 공복에 마신다.

효능: 문어는 식품이지만 오랜 경험에서 보면 쇠고기를 먹고 소화장애를 일으켰을 때에 아주 효과가 있어 널리 쓰이고 있다. 아마도 문어에는 쇠고기만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소가 문어를 먹으면 장이 녹아서 죽는다는 옛말이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

### 개고기 먹고 체했을 때

사용법: 살구씨의 곱걸질과 뽕죽한 끝부분을 떼고 한 번에 2내지 4그램씩 하루 3번 복용하면 효험을 얻는다.

효능: 흔히 보신탄을 먹고 난 뒤 살구씨를 먹는 것은 소화를 위하여 복용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경험에서 얻어진 산물이며 현대 과학적인 효능 실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 돼지고기 먹고 체했을 때

사용법: 돼지고기를 먹고 복통을 일으켰을 때에 새우젓 국물을 한 숟가락 먹으면 곧 통증이 멎는다.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을 때에 새우젓에 싸서 먹으면 좋다.

효능: 새우젓은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키므로 위장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돼지가 새우젓을 먹으면 죽는다는 속설은 바로 이 효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통치방(通治方: 고기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처방)

아가위는 약명으로 산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고 체한 데는 아가위가 제일 좋다.

사용법: 이 약 20내지 40그램에 물을 붓고 1,2시간 서서히 끓여서 그 물을 마시면 복통과 속이 답답하고 그 들떠한 증상을 해소시킨다. 하루 3번 식사한 뒤 1시간 지나 복용한다.

효능: 소화액의 분비 촉진 작용이 왕성하여 음식 소화를 잘 시키고 건위 작용도 강하다. 특히 모든 육류를 먹고 소화 장애를 일으킨 증상에 탁월한 효과를 얻는다. 아마도 이 약만큼 소화력이 강력한 약도 드물 것이다.

이밖에 급성 이질에 유효하며 혈압을 내리고 산후 복통을 치료하는 데도 유효한 반응을 얻는다. 어린아이가 모유나 우유를 먹고 체한 데에도 산사는 좋은 치료제가 된다.